민주 '세대결' 앞두고 계파별 전열정비

11월 전대 당권경쟁·총선 대비 세력화 박차

쇄신연대 2기 출범·진보개혁모임 등 가시화

민주당 내 각 계파들이 오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파들이 몸 풀기에 나선 것으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물론 내년 총·대선 국면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대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희망 2012'란 이름으로 2기 출범식을 갖는다. 정동영·천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속해 있는 쇄신연대는 지난해 7월 10·3 전당대회에 앞서 정세균 당시 당 대표로 대변됐던 당권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쇄신연대는 김영진·천정배·문학진 의원을 2기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각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당 정책과 비전 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애초 쇄신연대 일각에선 해체론도 제기됐으나 지난 5월3일 집행부 모임을 갖고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개혁이라는 창립 목적은 지난 전당대회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야권 통합 등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해체가 아닌 일종의 '리모델링'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쇄신연대 측은 "당 개혁 등 창립 목적이 달성된 측면이 있고 또 까딱 잘못하면 하나의 계파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만 야권 통합 등의 이슈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돕는 등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2기 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 대권 경쟁을 앞두고 비주류의 세력화를 염두에 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86과 친노, 재야파의 연대체로, 당내 최대 조직인 '진보개혁모임'도 지난달 30일 낮 오찬 모임을 열어 당 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기 총선 공천 및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 대한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진보개혁모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근태 전 의원, 문희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모임인 청정회 소속 민주당 인사들은 3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모임 확대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5월 23일)를 계기로 친노 진영 안팎에서 '친노'의 의미를 '관계의 친노'에서 '가치의 친노'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회의 문호를 비(非) 청와대 출신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차기 당권 레이스 국면이 본격화되면 계파별 세 결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계파별 숨고르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선5기 지방자치 1년 평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진표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원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연합뉴스

한 '경선룰' 재의결 전국위 격돌 조짐

전국상임위 '선거인단 21만명 투표70%+여론조사 30%' 의결

한나라당이 지난 30일 7·4 전당대회 '경선 룰(rule)'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부 전국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2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전당대회 규정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당권주자 7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현재 규정대로 전대를 치르자"고 합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석위원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임전국위원 1명이 당헌 개정안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유로 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해 소란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당 지도는 이 같은 안건을 2일 전국위에서 의결하고 4일 전대에서 추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방침에 일부 전국위원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전국위에서 한바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전국위 의결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도부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한 철퇴"라며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이해봉 전국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 지도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혜진 전국위원도 "전대룰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전당대회도 연기해야 한다"면서 당헌 개정 강행 시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친이(친이명박)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전대룰 재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법적 절차만 보완해 땜질하겠다는 것은 당 지도부의 면피용으로, 전국위원들이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려면 당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 참석(37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당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 7·4 전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등록금 교직원 연금 전용 금지"

한 "이공계 전공 학생 등록금 우대를"

여야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는 대학등록금을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으로 전용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고, 재단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공계와 기초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이공계와 기초학문 분야의 명목등록금을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낮추거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도청의혹' 한선교 고발…점거농성 해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형사 고발키로 하는 등 여당에 파상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사흘째 이어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하자마자 문방위 회의장을 방문, 밤샘농성 중인 의원들을 격려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순리에 어긋나려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문방위원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은 절대 찬성하고 민주당과 시민들은 절대 반대하는 구도를 만들어 KBS와 민주당, KBS와 국민 간에 대립·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문방위 회의에서 공개한 한선교 의원을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시간이 지나도록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도청 당사자로 거론되는 KBS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만약 KBS가 그런 일을 했다면 공영방송의 존립 위기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했고,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봐야 한다. 당의 입장은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S는 공식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8월 국회 소집 사실상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8월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 달 동안 시급한 민생현안과 결산 및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7월 중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용석 의원직 제명 처리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지난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반대토론 의사를 밝히는 등 '서둘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민주당에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답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옥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